



강기정 광주시장이 2일 오전 시청에서 이정선 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함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후 광양 중마시장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 양부남 상임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소중한 한 표로 민주주의 완성” 투표 독려 한목소리

시장·교육감·구청장 “집단지성 발휘”
 금지사 “100% 참여로 저력 보여달라”
 신수정 시의회 의장 “투표로 주권행사”
 민주 시장 “투표해야 내란 극복 가능”

광주·전남지역 단체장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6·3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시·광주교육청·5개 자치구는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 참여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였다.

기자회견에서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그동

안 추진해 온 ‘투표가 쉽습니다’ 캠페인 실천 성과를 공유했다.

이들은 “계엄을 막아내느라, 탄핵의 응원봉을 드느라, 국유 세력으로부터 광장을 지켜내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이제 마지막 한 걸음, 본투표만 남았다. 투표는 국가가 누구의 손에 있는지, 또 누구의 손에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계엄의 가장 큰 후과는 극단적 편 가르기와 음모론”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울 가장 큰 힘은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집단지성이고 집단지성의 힘은 투표 참여로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전투표에서 광주시민들이 52.12%라는 놀라운 투표율을 보여준 만큼 (본투표로) 마지막 점을 찍어달라”며 “이미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 독려를,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투표 참여에 나서 광주는 이번에도 투표하는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을 보여

주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여수시 신동아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투표 참여 1인 캠페인을 벌인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00% 투표로 전남의 자부심을 끝까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희망을 담아 오늘도 피켓을 들었다”며 “5월28일부터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전남 곳곳을 누볐다. 도민들께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해주십사 호소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참 감사하게도 도민들께서 사전투표율 역대 최대인 56.5%, 전국 1위로 화답해주셨다”며 “늘 그렇듯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 원천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국난 극복도, 민주 회복도, 경제 발전도, 12·3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도 결국 국민이었다”며 “그 중심에 늘 우리 전남도민이 있었다. 6월3일 대선, 100% 투표 참여로 전남의 자부심과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

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투표는 나의 힘”이라며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정례회 개최사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제21대 대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투표는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다. 반드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신성한 한 표로 증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신 의장은 “지난 내란 사태 정국에서 헌법 원칙이 처참히 짓밟히는 것을 목도했다”며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나 아니냐를 넘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치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를 국민이 투표로서 응답하는 선거”라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서임석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1)은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며 “시민 각자의 한 표가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하고 이 도시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길을 다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5·18 민주묘지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과의 대결이다. 투표해야 내란을 극복하고 광주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며 “투표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도 이날 오전 11시 전남대학교 1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내란 세력 청산”이라며 “투표로 그들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광장을 가득 채우던 빛은 투표소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들의 부활을 막고 국민들의 의지를 보이는 투표 결과가 절실하다”며 “선배들이 피로써 쟁취한 투표권으로, 우리가 가진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바꾸자”고 덧붙였다.

/김재정·변은진·안재영 기자

오전 6시-오후 8시 본투표…자정께 당선인 윤곽

사전투표율 34.7% 최종 투표율 관심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

오후 8시30분께 개표…수검표도 도입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천236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종료 이후 개표 작업에 들어가 이른 자정을 전후해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한 만큼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소극적 투표 성향을 보였던 영남권과 역시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던 수도권·충청권 등의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과 같이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26.06%, 최종 투표율은 77.2%였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36.93%)을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77.1%로 직전 대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선거 당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장치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배치된다. 개표는 오후 8시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총 254곳의 개표소가 설치되고 7만여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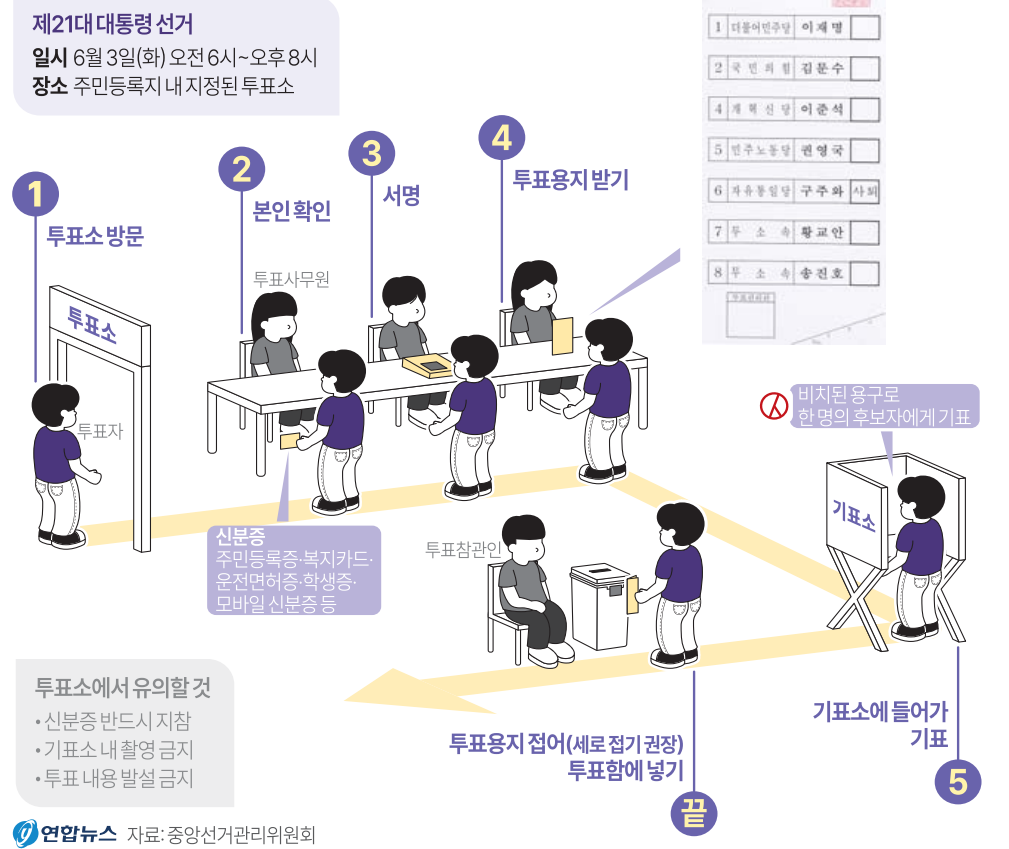
개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진행되며 이번 대선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김진수 기자·연합뉴스

2025 대선 선거일 투표 이렇게 하세요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소중한 한 표 행사해달라”

선관위원장 대국민담화

“선거결과 존중하고 승복해주길 당부”

“한 표, 한 표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

노태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면서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에게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거 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번 선거를 준비했다”며 지난해 총선 때 도입한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소별로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집계해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감판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 투표소, 개표소 등 중요한 선거 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가 마무리되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정확하고 빈틈없이 개표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선거는 많은 인력과 시설, 그리고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전 국가적 행사”라면서 “이번 선거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 금지·SNS 게시 불가

전남선관위, 투표 유의사항 당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 금지, 투표지 SNS 게시 불가 등 투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한다.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지 촬영 후 SNS 게시·전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경찰 경찰서와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선관위 사무소·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 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 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양시원 기자